

곡성읍·오곡면에 에너지 자립마을 만든다

36억 들여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에너지 융복합공모 선정 19억 확보 에너지 자립·온실가스 감축 추진

곡성군이 곡성읍과 오곡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친환경 에너지 기반 확충에 나선다. 곡성군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1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9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주택·공공·산업(산업) 건물 등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등)을 설치해 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곡성군은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9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36억원 규모로 2021년에 곡성읍과 오곡면 오지리 일원에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게 된다. 총 415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평균 70~80% 가량의 전기 사용료의 절감효과가 있다. 태양열 설비의 경우에는 20~30% 정도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곡성군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융복합지원사업 대상지역을 모든 읍면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에너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곡성군이 내년에 36억원을 들여 곡성읍과 오곡면에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한다. 곡성읍 전경.

열화상카메라 특혜구매 의혹 광양시, 민관합동조사 착수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열화상카메라의 성능과 수의계약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단은 광양시, 시의회, 광양참여연대, 시민명예감사관 등 6명으로 구성됐고 현장조사 후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지난 21일 열화상 카메라 36대가 설치된 공공기관 중 표본으로 3개소와 민간이 자체 설치한 하나마트 중마본점 1개소의 정상 작동 여부, 온도 측정의 정확성 등을 조사했다. 김진식 광양시 감사실장은 "이번 조사와 관련, 열화상카메라 현장조사 후 구매 관련 서류 검토와 관련 규정위반 여부 등 제기된 문제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구입한 안전인식 체온측정 카메라 구입과정에 수의계약 특혜시비와 장비의 성능 오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부산 확진자 다녀간 순천, 코로나 추가 감염 없어 '안도'

밀접촉자 등 199명 전원 음성 시, 부산시에 구상권 청구키로

부산 383번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순천 장례식장의 밀접촉자 등 199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장례식장 특성상 집단 감염으로 변질 수 있었으나 다행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방역 당국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장례식장 접촉자 179명과 기타 장소에서 접촉한 20명 등 199명

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순천시는 재난 안전 문자 등을 통해 해당 장례식장에 다녀간 방문객이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고 순천지역 가족 35명을 자가격리했다. 서울과 부산·경기지역 가족 등 25명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순천시는 지난 21일 장례식장을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했으며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했다. 확진자가 머물렀던 장례식장은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고 실내 공간이어서 자

칫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될 뻔했다. 순천시가 장례식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조문객은 마스크를 착용했고, 띄엄띄엄 앉아 감염이 확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 조문객은 물론,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가족들도 아직 감염되지 않았다. 순천시는 자가격리 중에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하루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려 관찰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16일 탑승했던 버스 승객들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에서는 지난달 20일 방문판매업체를 다녀온 7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빠른 속도로 퍼져 모두 6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9일부터 신규 동선에 의한 감염자는 나오지 않고 있으나, 부산 확진자가 장례식장에 사흘이나 머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편, 순천시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지키지 않은 부산 383번 확진자와 이를 알고도 통보를 해주지 않은 부산 북구보건소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구상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코로나19 검사비와 공무원 비상 근무 등에 따른 제반 비용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수해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입주



곡성군은 지난 8월 수해를 당한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6개동에 입주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2억1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해 마련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방·주방·화장실 등과 냉난방 시설을 갖춘 24㎡ 규모다. 영농 등의 이유로 기존의 생활 터전에서 생활을 희망하는 이재민 67가구에 제공해 24일 전까지 모두 입주할 예정이다. 이재민들은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될 때까지 임시주택에서 1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할 경우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히 주민 입주가 가능하도록 재난복구계획 확정 전 지자체의 가용재원(예비비 등)을 우선 투입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 곡성군은 조립주택 설치사업 발주를 신속히 추진, 사업과 동시에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절차도 병행해 설치 시기를 앞당겼다. 이날 김계중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산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을 직접 위문하기도 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보성서 발견된 '한반도 공룡' 기념메달로 재탄생

조폐공사 황금빛 공룡알 입체형 제작

백악기 시대 한반도 공룡을 첨단 주화 제조기술로 재현한 한반도 공룡 시리즈 기념 메달이 나왔다. 23일 보성군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2003년 보성에서 발견된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를 주제로 한 기념 메달을 공개했다. 전남대 한국공룡연구센터와 협업을 통해 탄생한 메달은 황금빛 공룡알을 입체형으로 만들어 국내 처음으로 메달과 결합했다. 실제 발굴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알을 직접 꺼내 볼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공룡알 안쪽에는 공룡뼈 화석을 정교하게 새겼다. 메달 앞면에는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의 복원된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했다고 공사 측은 전했다. 뒷면에는 공룡 실루엣·학명(Koreanosaurus boseongensis)·2020·'KOREAN DINOSAUR'·'KOMSCO' (한국조폐공사 영문 명칭) 문자를 담았다. 은과 백 동 소재 두 종류로, 메달 포장 패키



지는 한반도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과 공룡알을 모티브로 삼았다. 메달은 은(외부메달 중량 370g·직경 70mm, 내부 공룡알 중량 38g·30×40mm) 999개, 백 동(중량 26g·직경 40mm) 2000개가 1차로 판매된다. 가격은 은 제품 118만8000원, 백동 제품 4만9500원이다.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www.koreamint.com) 등에서 판매 예약을 받는다. /보성=김윤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소방서에 다목적 소방 훈련탑 준공...전남 최초

10m 높이 하강훈련 등 시설 갖춰 주민에 개방 소방안전 체험장 활용

순천소방서는 전남 최초로 다목적 소방 훈련탑을 준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다목적 소방 훈련탑은 각종 재난을 대비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훈련을 강화해 현장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감소에 위해 설치됐다. 순천소방서 내에 설치한 훈련탑은 10m 높이의 철골조 4층 규모다. 지하층 인명 구조 훈련, 맨홀 구조 훈련, 아파트 화재 진압 훈련, 레펠을 이용한 하강 훈련 등 각종 훈련 시설과 비상탈출을 위한 완강기 등을 갖추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해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교육' 등 소방안전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수철 순천소방서장은 "사고유형별 전문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